

<2013.12.31.~2014.01.02.>

전 북 일 보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당선작 시상식

고창군은 지난 31일 군청 회의실에서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공모 당선작 발표 및 시상식을 가졌다.

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로고 개발을 위해 지난 9월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자격제한 없이 전국 공모를 실시한 결과 이날 최우수상에 유정현(41.서울), 우수상에 김수남(47.고창), 장려상 안경희(37.서울)씨를 각각 선정하고 700만원, 200만원, 100만원의 상금을 수여했다.

디자인전문가, MAB한국위원회 위원,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11명은 응모작 52건을 접수받아 생물권보전지역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을 선정

한 후 디자인, 실용성, 상징성, 독창성, 내용 등 총 5개 분야로 구분 심사한 결과 최종 3개 작품을 선정했다.

앞으로 당선된 작품에 대해 특허청 출원 및 상표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후 행정 및 지역 농수축협, 영농법인, 가공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2014년 상반기에 로고 라벨링 기준안과 운영지침 마련, 종합적인 생산·유통·판매 전략시스템 구축 등 로고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3차·6차 산업까지 라벨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창=김성규기자 skk407@

새전북신문

고창군 상징 로고 공모작 선정

생물권보전지역 표현한 유정현·김수남·안경희씨 시상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로고를 개발하기 위해 9월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자격제한 없이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군은 응모작 52건을 접수받아 디자인전문가, MAB한국위원회 위원,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11명이 심사하여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구랍 31일 밝혔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을 3단계에 걸쳐 디자인, 실용성, 상징성, 독창성, 내용 등 총 5개 분야로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최우수상 유정현(41·서울·상금 700만원), 우수상 김수남(47·고창·상금 200만원), 장려상 안경희(37·서울·상금 100만원)씨가 각각 선정됐다.

군은 앞으로 당선된 작품에 대해 특허청 출원 및 상표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후 군 행정 및 지역 농수축협, 영농법인, 가공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4년 상반기에 로고 라벨링 기준안과 운영지침 마련, 종합



유정현



김수남



안경희

적인 생산·유통·판매 전략 시스템 구축 등 로고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

산물에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3차·6차 산업까지 라벨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물권보전지역 라벨링사업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고창의 농수축산물 브랜드가치 향상 및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희 기자

전북도민일보

고창군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로고 공모작 선정

서울 유정현씨 최우수상
우수상엔 고창 김수남씨

고창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로고 공모에서 디자인과 실용성, 상징성, 독창성, 내용 등을 잘 표현한 서울의 유정현씨 작품이 최우수상으로 선정됐다. 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로고 개발을 위해 지난 9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자격 제한 없이 전국 공모를 실시해 총 52건의 공모작을 접수했다.



최우수상 유정현씨

영광의 수상자는 최우수상 유정현(41·서울, 상금 700만원), 우수상 김수남(47·고창, 상금 200만원), 장려상 안경희(37·서울, 상금 100만원)씨로 구랍 31일 중무식에서 시상식을 가졌다.

당선된 작품은 특허출원 및 상표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후 행정과 농수축협, 영농법인, 가공업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통해 활용할 계획이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전라일보

고창 유네스코 보전지역 로고 공모 유정현씨 출품작 '최우수상' 선정

지난달 31일 고창군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공모 당선작을 발표했다.

최우수상에는 유정현(41.서울·사진)씨가 차지해 상금 700만원을 받았으며 우수상은 김수남(47.고창)씨가 선정돼 상금 200만원과 함께 표창장이 수여됐고 장려상은 안경희(37.서울)씨가 이름을 올려 상금 100만원을 수상했다.

이번 당선작 발표는 지난해 군이 9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생물권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로고를 개발하기 위해 전국 공모를 실시한바 있으며 이에 응모작 52건을 접수받아 디자인전문가, MAB한국위원회 위원,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11명이 심사하여 수상작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당선된 작품에 대



해 특허청 출원 및 상표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후 군 행정 및 지역 농수축협, 영농법인, 가공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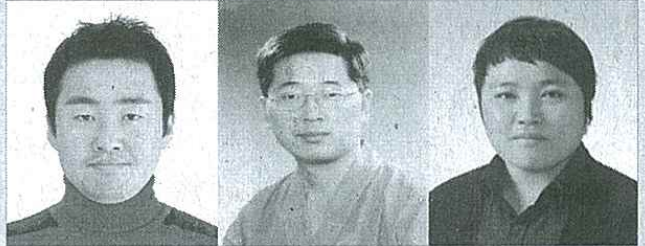
획"이라며 "올 상반기에 로고 라벨링 기준안과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생산·유통·판매 전략시스템 구축 등 로고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마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3차·6차 산업까지 라벨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고창=신동일기자·sdl@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수상작 발표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로고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자격제한 없이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응모작 52건을 접수받아 디자인전문가, MAB한국위원회 위원,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11명이 심사하고 지난 31일 밝혔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을 3단계에 걸쳐 디자인, 실용성, 상징성, 독창성, 내용 등 총 5개 분야로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개 작품(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1)이 선정됐다.



왼쪽부터 최우수상 유정현, 우수상 김수남, 장려상 안경희.

한편, 수상자는 최우수상 유정현(41·서울), 우수상 김수남(47·고창), 장려상 안경희(37·서울)이며, 지난 달 31일 종무식에서 시상했다.

/고창=박용관 기자(sc0747@)

전북중앙신문

고창생물권보전지역 로고 당선작 발표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로고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자격제한 없이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응모작 52건을 접수받아 생물권보전지역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을 3단계에 걸쳐 디자인, 실용성, 상징성, 독창성, 내용 등 총 5개 분야로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개 작품(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1)이 선정됐다.

영광의 수상자는 최우수상 유정현(41.서울) 상금 700만원, 우수상 김수남(47.고창) 상금 200만원, 장려상 안경희(37.서울) 상금 100만원이 수여했다. 군은 앞으로 당선된 작품에 대해 특허청 출원 및 상표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후 군 행정 및 지역 농수축협, 영농법인, 가공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새만금일보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당선작 발표

유정현-최우수상·김수남-우수상·안경희-장려상 수상

고창군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로고를 개발하기 위해 자격제한 없이 전국 공모를 실시, 수상작을 선정했다.



유정현(최우수상)



김수남(우수상)



안경희(장려상)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을 3단계에 걸쳐 디자인, 실용성, 상징성, 독창성, 내용 등 총 5개 분야로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개 작품(최우수상 1, 우수상 1, 장려상 1)이 선정됐다.

최우수상은 유정현씨(41·서울)가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김수남씨(47·고창), 장려상 안경희씨(37·서울)에게 돌아갔다.

군은 앞으로 당선된 작품에 대해 특허청 출원 및 상표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후 군 행정 및 지

역 농수축협, 영농법인, 가공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14년 상반기에 로고 라벨링 기준안과 운영지침 마련, 종합적인 생산·유통·판매 전략시스템 구축 등 로고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3차·6차 산업까지 라벨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신익희기자/syhee5311@hanmail.net

전 주 매 일

고창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당선작 발표

군, 서울 유정현 씨 최우수상... 올 하반기 상용화 방침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로고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자격제한 없이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군은 응모작 52건을 접수받아 디자인전문가, MAB한국위원회 위원,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11명이 심사하여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지난해 12월 31일 밝혔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을 3단계에 걸쳐 디자인, 실용성, 상징성, 독창성, 내용 등 총 5개 분야로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개 작품(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1)이 선정됐다.

영광의 수상자는 최우수상 유정현(41.서울) 상금 700만원, 우수상 김수남(47.고창) 상금 200만원, 장려상 안경희(37.서울) 상금 100만원이 수여되며, 지난해 12월 31일 중무식에서 시

상한다.

앞으로 당선된 작품에 대해 특허청 출원 및 상표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후 군 행정 및 지역 농수축협, 영농법인, 가공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에 로고 라벨링 기준안과 운영지침 마련, 종합적인 생산·유통·판매 전략시스템 구축 등 로고 상용화를 위한 준비를 마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1차 산업뿐만 아니라 2차·3차·6차 산업까지 라벨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 라 매 일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공모 당선작 발표

유정현씨 최우수상 · 김수남씨 우수상 수상

고창군(군수 이강수)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지역을 대표하고 상징할 수 있는 로고를 개발하기 위해 지난해 9월 9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자격제한없이 전국 공모를 실시했다.

군은 응모작 52건을 접수받아 디자인전문가, MAB한국위원회 위원, 군의원 등으로 구성된 심사위원 11명이 심사해 수상작을 결정했다고



유정현씨.



김수남씨.



안경희씨.

지난달 31일 밝혔다.

고창 생물권보전지역을 가장 잘 표현한 작품을 3단계에 걸쳐 디자인, 실용성, 상징성, 독창성, 내용 등 총 5개 분야로 심사한 결과 최종적으로 3개 작품(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1)이 선정됐다.

영광의 수상자는 최우수상 유정현(41·서울) 상금 700만 원, 우수상 김수남(47·고창) 상금 200만 원, 장려상 안경희(37·서울) 상금 100만 원이 수여됐다.

앞으로 당선된 작품에 대해 특허청 출원 및 상표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후 군 행정 및 지역 농수축협, 영농법인, 가공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생물권보전지역 라벨링사업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고창의 농수축산물 브랜드가치 향상 및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병훈 기자



고창,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로고 공모작 3편 선정

(고창=뉴스1) 박제철 기자

입력: 2013.12.31 13:21:03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전북 고창을 상징하는 로고 공모작이 발표됐다.

군은 지난 9~11월 까지 자격제한 없이 전국 공모를 실시, 총52건을 접수받아 디자인, 실용성, 상징성, 독창성, 내용 등 총 5개 분야로 심사한 결과 최종 3개 작품을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공모에서 최우수상에는 유정현(41·서울), 우수상 김수남(47·고창), 장려상 안경희(37·서울)씨가 선정됐다.

군은 당선된 작품에 대해 특허청 출원 및 상표등록을 통해 지적재산권을 확보한 후 군 행정 및 지역 농수축협, 영농법인, 가공업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4년 로고 라벨링 기준안과 운영지침 마련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에 라벨링을 확대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생물권보전지역 라벨링사업을 통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고창의 농수축산물 브랜드가치 향상 및 주민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